

## 차자 ‘毛冬’과 ‘毛如’

### 고 정 의

#### 1

고대국어의 부정사로 향가에 쓰인 것은 ‘不冬, 毛冬, 毛如, 不喻’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하여서는 소창진평(1929), 양주동(1942), 지현영(1947), 김준영(1964), 김완진(1980) 등에서 해독과 함께 단편적으로 혹은 자세히 다루어졌고 남풍현(1976)에서 전반적으로 정밀히 논의되었다. 본고는 이들 논의에서 보이는 해독의 차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들과 관련된 해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당해 차자의 용자법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통해 합리적 해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2.1. ‘毛冬’은 가능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불능’의 의미의 부정소 ‘못’으로 읽혀 왔다. ‘毛冬’은 향가 및 이두문에서 사용되었으나 ‘不喻’나 ‘不冬’에 비하여 사용 예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향가에서의 ‘毛冬’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sup>1)</sup>

- (1) 1.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憂音 (모죽지랑가 2)
2. 雪是 毛冬 乃乎尸 花判也 (찬기파랑가 10)
3. 去奴隱 處 毛冬乎丁 (제망매가 8)
4. 善芽 毛冬 長乙隱 (청전법륜가 7)

1) (1.6-7)의 ‘毛蓬’과 ‘毛等’은 해독에 차이가 있으나 ‘毛冬’과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부정사 ‘못’의 이표기로 보아 제시하기로 한다. 이두문에서의 용례는 다음이 있다.  
右職賞分以 酬答毛冬教 功業是去有在等以 (상서도관첩 46-48)

- 5. 際 毛冬留 願海伊過 (총결무진가 4)
- 6. 貞史 毛達 只將來吞隱 (우적가 2)
- 7. 毛等 尽良 白乎隱 乃兮 (칭찬여래가 10)

(1. 1)의 ‘毛冬’은 두 가지로 해독되어 왔다.

- (2) 소창진평 : 모든 것이사 울오어 설음
- 양주동 : 모든 것사 우리시름
- 지현영 : 잇사 울울 이시름
- 김선기 : 모든 곳사 울울 이 시름
- 서재극 : 모들 잇사 울울이 시름
- 김준영 : 모들 잇사 울울 이 시름
- 김완진 : 모들 기스샤 우를 이 시름

‘모든, 모둔, 모돈’과 같이 관형사 ‘모든’으로 해독하거나 ‘뭉, 모들’과 같이 ‘불능’의 부사 ‘뭉’으로 해독되어 왔다. ‘毛冬’을 관형사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부사로 읽을 것인가는 바로 뒤의 ‘居叱沙’를 명사로 보느냐 아니면 동사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毛冬’을 ‘모둔’으로 해독하면 이것은 향가 표기에서 ‘冬’을 유일하게 음으로 읽는 예외가 된다. 향가에 쓰인 ‘冬’의 용례를 보면 부정사 ‘不冬’ ‘毛冬’에서의 용례 외에 阿冬呑(모죽지랑가 3), 放冬是(우적가 7), 放冬矣(도천수관음가 10), 部伊冬衣(칭찬여래가 1), 間王冬留(동 8) 등이 있고 이들은 모두 ‘뭉’로 읽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만 ‘冬’을 ‘뭉’으로 읽고 ‘毛冬’을 바로 뒤의 명사 ‘居叱沙’를 수식하는 관형사 ‘모둔’으로 보는 것은 이미 정연찬(1972:70-7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합리적 해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하나 만일 ‘居叱沙’가 명사라면 수식어 ‘모둔’의 의미를 나타내는 차자로는 향가에 쓰인 ‘뭉’의 용례로 보아 ‘毛冬’보다는 ‘뭉’이 선택되었을 것이다.<sup>3)</sup>

3) 이 외에 冬矣也(원가 4)의 예가 있으나 이는 ‘겨울’의 표기로 보아 제외했음.

- (3) 1. 皆 佛體 (청불주세가 1)
- 2. 皆 往焉 世呂 修將來賜留隱 (상수불학가 2)
- 3. 皆 佛體置 然叱 爲賜隱伊留兮 (상동 8)
- 4. 皆 吾衣 修孫 (보개회향가 1)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에 대한 차차로는 '皆'가 쓰이고 있다.<sup>4)</sup> (3)에 쓰인 '皆'를 모두 관형사 '모든'으로 읽는다면 이러한 환경에서의 '皆'를 '皆+명사(구)'의 구성에 쓰인 것으로 보고 명사(구)에 선행하는 '皆'는 모두 관형사로 읽는다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의 '毛冬'을 관형사 '모든'으로 읽는다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르므로 이를 부사 '모둘'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sup>5)</sup> 다음의 (1.2)를 보자. (1.2)는 다음과 같이 해독되었다.

- (4) 소창진평 : 눈이 물나을 花判이요
- 양주동 : 서리 묻누을 花判이여
- 지현영 : 서리 모드누을 불한여
- 김선기 : 눈이 물라을 화랑이야
- 서재극 : 서리 모들다을 花判이야
- 김준영 : 서리 모들다을 花判여
- 김완진 : 누니 모들 두폴 곳가리여

위에서 '毛冬'은 '몰, 묻, 모드, 모들' 등으로 읽고 '모르다'의 의미로 해

- 3) 이기문(1989:105-106)에서는 중세 문헌의 새김에 '皆'는 한결같이 '다'로 나타나고 '한'이나 '모든'은 '多,衆,諸', '모도'는 '摠,都' 등의 번역에 국한되므로 '한'이나 '모든' 또는 '모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皆'보다 '衆', '諸' 또는 '摠', '集' 등이 선택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 4) (3.2)와 (3.3)의 '皆'를 소창진평(1929:123)은 '므릿', 김준영(1987:223-224)과 김완진(1980:193)은 '모든'으로 읽었고 양주동(1965:816)과 지현영(1947:44)에서는 (3.2)의 '皆'는 뒤의 '往'과 함께 동사로 보아 과거의 '니건'(지현영에서는 또는 '넌')으로 (3.3)의 '皆'는 공히 '한'으로 읽었다. 뒤에 통합되는 명사와의 구성을 고려하여 '모든'으로 읽는다.
- 5) '毛冬'을 '모든'로 읽을때 이것은 '不冬'이 '안+들'로 분석되듯이 '모+들'로 분석된다. '毛冬'의 '毛'는 '不冬'의 '不'과 달리 음차로 보인다. 김완진(1980:56)에서는 이를 聲兼意着의 혼차로 보고 있다.

독되어 왔으나 김완진(1980:90)에서는 주·술의 호응관계로 보아 부사로 해독하고 있다. 주어 ‘누니’(雪是)와 서술어 ‘모르다’(毛冬)의 호응관계가 부자연스럽고 ‘다’의 표기에 쓰인 같은 노래의 ‘逐內良齋’의 ‘內’의 존재로 보아 ‘乃’를 ‘누’의 음가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毛冬’을 부사로 해독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마는 문제는 그 뒤의 ‘乃’를 어떻게 읽느냐는 것이다. ‘毛冬’을 부사로 보면 ‘乃’는 동사일 수밖에 없다.<sup>6)</sup> 김완진(1980:90)에서는 ‘乃’를 ‘久’의 전와로 보고 ‘덮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전와를 문증할 수 없음이 문제로 남는다. (1.3)의 ‘毛冬’은 ‘물온명, 모드온더, 모드오져, 물온맹, 모드론명, 모들온더, 모드론더’에서 보듯이 모두 ‘모르다’로 해독이 일치하고 있다. (1.4)의 ‘毛冬’도 ‘물오기, 물들, 모들, 물들, 모들’ 등으로 읽고 모두 동사 ‘모르다’로 해석하고 있다. (1.5)의 ‘毛冬’은 ‘毛冬溜’를 ‘물울, 모들, 모를, 모들룰, 모드논’<sup>7)</sup>으로 해독하고 모두 ‘모르다’로 해석하고 있다. ‘毛冬’을 ‘모르다’의 차자로 보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

2.2. ‘毛冬’의 용례는 아니지만 부정부사 ‘몰’으로 해독되어 온 예로 다음의 ‘毛如’가 있다. ‘毛如’의 용례는 제망매가에 오직 한 예가 있다.

(5) 毛如 云遣 去內尼叱古 (제망매가 4)

소창진평 : 물으다 일으고 가늑넛고

양주동 : 물다 닐고 가늑넛고

지현영 : 물닐고 가늑넛고

김선기 : 물 다 닐고 까나넛고

서재극 : 모다 니르견 가늑넛고

김준영 : 모드 니르고 가늑넛고

김완진 : 물다 니르고 가늑넛고

(4)에서 ‘毛如’는 ‘물으다, 물다, 물, 물 다, 모다, 모드, 물다’로 해독하여

6) 현대국어의 ‘물[형용사]’과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물’이 ‘물 [+동사, 형용사]’와 같은 선택자질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乃’의 위치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

7) ‘毛冬溜’의 ‘溜’를 김완진(1980:208)에서는 고대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리’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므로 ‘溜’의 전와로 보고 ‘논’으로 읽고 있다.

왔다. 소창진평(1929:212) 만이 ‘모르다’의 뜻으로 해독하고 그 외는 모두 부정의 ‘뭉’으로 해독하여 왔다. ‘毛如’를 ‘뭉다’로 읽을 때 ‘뭉다’는 ‘뭉+다’의 구성인데 ‘뭉’의 ‘毛’는 음가자이고 ‘다’의 ‘如’는 훈가자<sup>8)</sup>로 보인다. 그러나 ‘毛如’를 ‘뭉다’와 같이 해독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서재극(1979:3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毛如’의 ‘毛’를 ‘뭉’으로 읽는 것은 ‘毛’의 독음이 ‘뭉’이 아니라는 난점이 있다. 소창진평(1929:212)은 ‘毛’를 ‘毛冬’의 약형으로 보고 ‘如’를 ‘云遣’와 함께 읽어 ‘…라고 말하고’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양주동(1965:549)은 ‘毛’를 ‘뭉’으로 읽고 ‘如’를 ‘:다’(盡,悉)로 읽어 ‘毛如’를 ‘未盡’으로 해석하였다. 김준영(1979:151)에서는 ‘如’를 ‘冬’의 오자이거나 ‘如’ 다음에 ‘尸’가 빠진 것으로 보고 만일 오자가 아니라면 ‘모들>모드>뭉’의 중간 형태로 보고 있다. 서재극(1979:38)에서는 ‘毛如’를 ‘未盡’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불능’의 ‘\*뭉’에 근거한 부사로 보고 있다. 우리는 ‘毛’가 ‘뭉’의 표기라면 ‘毛’에 말음을 첨기하여 ‘毛叱’ 정도로는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향가에서의 ‘如’의 용례로 보아 ‘如’를 ‘:다’의 표기로 보기는 어렵다.

- (6) 1. 花脬 折叱可 獻乎理音如 (헌화가 4)
2. 爲賜尸知 民是 愛尸 知古如 (안민가 4)
3. 爲內尸等焉 國惡 太平恨音叱如. (상동 10)
4. 郎也 持以支如賜烏隱 (찬기과랑가 7)
5. 夜入伊 遊行如可 (처용가 2)
6. 本矣 吾下是如馬於隱 (상동 7)
7. 夜矣 卯乙 抱遣 去如 (서동요 4)
8. 來如 來如 來如 (풍요 1)
9. 吾隱 去內如 辭叱都 (제망매가 3)
10. 此矣 彼矣 浮良落尸 葉如 (상동 6)
11. 道修良 待是古如 (상동 10)
12. 今吞 藪未 去遣 省如 (우적가 4)

8) 음가, 훈독 등의 술어는 남풍현(1981)의 차차체계에 따른 것임.

## 13. 此如 趣可伊羅行根 (총결모진가 5)

위의 용례는 (6.10)과 (6.13)에서와 같이 명사 ‘葉’, ‘此’ 다음에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면 ‘如’는 주로 선어말어미 또는 어말어미 표기에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가에서 ‘如’가 ‘:다’를 표기한 용례가 확인되지 않거니와 이두문에서도 ‘如’는 ‘:다’의 차자로 쓰인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sup>9)</sup> 이와같이 ‘如’는 명사 다음에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사 어간+ㄷ’ 또는 ‘동사 어간+如+어미’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毛如’를 쿠풀사 ‘뭉다’로 읽는다면 이는 ‘如’가 부사에 연결된 유일한 예가 된다.<sup>10)</sup>

‘毛如’는 양주동(1942) 이래 부정의 부사 ‘뭉’으로 해독되어 왔고 뒤에 오는 동사 ‘云’과의 통합으로 보아 문맥에 무리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如’가 ‘동사 어간+如’ 그리고 ‘명사+如’의 구성만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해독한다면 ‘毛’는 동사 또는 명사로 해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아 ‘毛’가 동사로 해독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명사로 읽는 경우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毛’를 명사로 읽는다면<sup>11)</sup> ‘毛如’는 ‘털(터럭)곧(다비)’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3)은 ‘(나는 갑니다란 말도) 털같이 아주 가늘고 힘없이 겨우 말하고 가느냐’는 정도의 의미가 되어 육친간의 애절한 구별의 묘사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12)</sup> ‘毛’를 ‘털’로 혼독하게 되면 수리는 ‘毛’를 ‘뭉’ 또는 ‘모’로 읽는데서 오는 일말의 의문점을 소거하고 명사 뒤에 오는 ‘如’는 반드시 혼독된다는 규칙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如’의 용자법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sup>13)</sup> 그러므로 우리는 ‘毛如’를 부정의 부사로만 해독하는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毛如’를 ‘명사+如’와 같이 해독하면 ‘뭉’의 차자로는 자연히 ‘毛冬’류만이

3) 이두문에서도 주로 어미에 쓰이고 있다.

4) 이두에 貌如, 右如등의 부사가 있으나 이는 ‘貌’ ‘右’ 등의 명사에 ‘如’가 연결된 것이다.

1) ‘毛’가 ‘털’의 의미로 쓰인 예로 한자어이지마는 ‘一毛叱 德置’(칭찬여래가 9)의 한 예가 있다.

2) 과연 이러한 비유법이 당시에 존재했는지는 과제로 남는다. ‘실날같은 목소리’와 같은 비유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문맥적 의미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毛’의 명사 여부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연 없었던 것은 너무 ‘毛冬’의 ‘毛’에 이끌린 결과일 것이다.

남게 된다.

2.3. 부정사로 표기된 예는 아니지만 모죽지랑가의 첫구의 '皆理米'의 '皆'를 지금까지의 해독과 달리 부정의 '뭉'과 관련시켜 읽은 김완진(1980:55)에서의 해독은 부정법과 관련되므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7) 去隱春 皆理米(모죽지랑가 1)

소창진평 : 가는 봄이 다 다스리매

양주동 : 간봄 그리매

지현영 : 간봄 그리매

김선기 : 간 밤 가리매

서재극 : 간 봄 그리매

김준영 : 간 봄 그리매

김완진 : 간 봄 뭉 오리매

'皆理米'는 (7)에서와 같이 '다 다스리매, 그리매, 그리매, 가리매, 그리매, 뭉오리매' 등으로 해독되어 왔다. 이들 해독에서의 문제는 우선 '皆理米'를 한 단어로 보느냐의 여부, 둘째로는 훈주음종식의 '讀假의 원리'(남풍현 1981)를 무시하고 세 자를 모두 음가자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소창진평(1929:149)과 김완진(1980:53)을 제외하면 모두 '皆'를 다음의 '理米'와 함께 음가자로 읽고 있다<sup>14)</sup>. 이 둘의 해독은 혼독이란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전자에서는 '皆'를 '다'로 읽은 반면 후자에서는 '모도'로 읽고 이를 부정사 '뭉'의 표기와 관련시킨 점이 다르다. '皆'를 음가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혼독자로 볼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 향가에서의 '皆'의 용례를 보기로 하자.

'皆'의 용례로는 (2)에서 본 용례(7.1-4) 외에 (7.5-6)의 예가 더 있다.

(8) 1. 皆 佛體 (청불주세가 1)

2. 皆 往焉 世呂 修將來賜留隱 (상수불학가 2)

14) '皆理米'를 모두 음으로 읽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정연찬(1972:66-68), 김완진(1980:54) 참조.

3. 皆 佛體置 然叱 爲賜隱伊留兮 (상동 8)
4. 皆 吾衣 修孫 (보개회향가 1)
5. 伊知皆矣爲米 (청불주세가 7)
6. 然叱皆好尸卜下里 (상수불학가 7)

위에서 (7.5)와 (7.6)의 경우를 제외하면<sup>15)</sup> 나머지 ‘皆’는 모두 관형사 ‘모든’으로 해독된다. 양주동(1965:809)에서와 같이 (7.5)와 (7.6)의 ‘知’와 ‘然叱’을 동사로 보고 ‘皆矣’와 ‘皆’를 같은 어미 ‘-귀’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동사 뒤에 오는 ‘皆’는 어미를 표기하는 음가자로 차차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皆理米’의 ‘皆’는 명사에 선행한 경우도 동사에 후행한 경우도 아니다. ‘米’가 속격 또는 어미로 쓰였음을 고려하고<sup>16)</sup> 향가 표기의 용자법의 원칙이 ‘훈독+음가’이었음을 고려하면 문맥으로 보아 ‘理’를 동사로 해독할 수밖에 없다. ‘理’가 동사라면 ‘皆+동사’의 구성과 ‘皆’자의 훈으로 보아 ‘皆’는 자연히 ‘다’ 또는 ‘모

5) (7.5)와 (7.6)은 다음과 같이 해독이 일치하지 않는다.

(7.5) 소창진평 : 이러케 **훤**매

양주동 : 이 알귀 **득**외매

지현영 : 이 알귀 **득**외

김선기 : 이디가이 **까**매

김준영 : 이 알 **모**디 **훤**매

김완진 : 더 알귀 **득**비매

(7.6) 소창진평 : **또** 다혀 디이리(오)

양주동 : 그랏귀홀 **비**훤리

지현영 : 그랏귀 홀 **디**호리

김선기 : 개린개 길골 **디**까리

김준영 : 그랏귀 홀 **디**훤리

김완진 : 그랏 **모**든 홀 **디**너리

6) ‘米’의 용례로는 다음이 있다. 해독의 차이가 있으나 (가)는 어미, (나)는 조사로 쓰인 예로 보인다.

(가) 1) 啞鳴爾處米(찬기파랑가 1)

2) 此矣 有阿米 次昃伊遺(제망매가 2)

3) 秋察尸 不冬爾 屋지墮米(원가 2)

4) 伊知皆矣爲米(청불주세가 7)

5) 煩惱熱留 煎將來出米(청전법륜가 6)

6) 身際只 碎良只 塵伊 去米(상수불학가 5)

(나) 1) 自矣 心米(우적가 1)

2) 得賜伊馬落 人米 無叱昆(수회공덕가 6)

도’로 혼독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소창진평(1929:150)에서 ‘다’, 김완진(1980:53)에서 ‘모도’로 혼독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皆’를 음가자로 읽는 해독은 재고되어야 한다.<sup>17)</sup> ‘皆’를 ‘모도’로 혼독할 때 문제는 ‘理’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理’를 김완진(1980:55)에서는 ‘米’와 함께 음가자로 읽어 ‘皆理米’를 ‘모도리매’로 해독하고 이를 ‘묻 오리매’로 분석한 것은 주어일 ‘去隱春’과의 호응관계에서 보면 자연스럽게마는 부정사와 동사어간을 ‘皆’ 한 자로 표기했다는 특이한 원리를 인정해야 되고(이기문 1989:106) 또 같은 노래 안의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憂音’에서 부정의 ‘묻’을 나타내는데 ‘毛冬’이 쓰이고 있으며 그것이 원칙인 이상 이를 짓혀두고 전혀 새로운 차자 ‘皆’로써 ‘毛冬’과 ‘來’의 ‘묻 오’를 표기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sup>18)</sup> 소창진평(1929:150)은 ‘理’를 동사 ‘다스릴’로 읽었으나 의미를 ‘어떤 일이 완전히 경과한 것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하였다. ‘去隱’을 ‘가는’으로 읽고 ‘去隱春’을 주어로 보았기 때문이다.

‘理’만을 동사로 보든 아니면 ‘皆理米’ 전체를 동사로 보든 ‘皆理米’를 동사구로 보면 ‘去隱春’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차자 ‘理’의 기본적 훈을 고려하면 ‘去隱春’은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서 ‘다스다’가 ‘다스리다’, ‘다스려지다’의 의미이었음을 고려하면 주어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의 우리의 관심은 ‘皆’의 음독 혹은 혼독 여부와 부정사 ‘묻’과 관련시킨 해독의 가능성 여부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2.4 부정사 ‘不冬’은 전률통보, 유서필지, 어록변증설 등에서 ‘안들’로 읽히고 있다. 이러한 독법은 이두의 전통적 독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들’은 ‘안+들’의 형태론적 구성으로 ‘안’은 ‘不’의 혼독이고 ‘들’은 형식명사 ‘ㄷ’에 ‘ㄹ’이 융합된 형태이다.

17) 향가의 표기체계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하여도 ‘皆’한 자를 ‘모든, -귀, 모도, 그’ 등의 차자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皆’가 실제로 ‘그’의 음가자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8) 김완진(1980:55, 116-117)에서는 ‘皆’의 경우와 같이 동사 어간을 표기하는 데 동사 어간 이외의 것을 이용한 예로 ‘集刀花乎白良’(원왕생가 6)의 ‘花乎’를 들고 이를 “고조-(拱)=꽃(花)+오(乎)”와 같이 해독하고 있다.

‘冬’의 독음이 ‘들’일 수는 없으므로 ‘冬’이 ‘들’로 읽힌 이유는 아직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독법의 해명이 불가능한 이유는 한자의 훈의 대신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훈몽자회와 광주판 천자문의 靡 안득미, ‘非 안득비’, ‘不 안득불’<sup>19)</sup>에 보이는 부정의 ‘안득’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향가에 쓰인 ‘不冬’의 용례는 5개로 균여전에 4개, 삼국유사에 1개가 보인다.

- (9) 1. 不冬 喜好尸 置乎理叱過(수회공덕가 8)
2. 佛影 不冬 應爲賜下品(청불주세가 10)
3. 他道 不冬 斜良只行齊(상수불학가 10)
4. 不冬 萎玉內乎留叱等耶(향순중생가 4)
5. 秋察尸 不冬爾 屋지墮米(원가 2)

(9)에서 ‘不冬’은 뒤에 오는 동사를 피부정사로 하고 있다. ‘不冬+동사’의 구성인 것이다. ‘不冬’은 이두문에서 용언문부정에만 쓰이는 바(남풍현 1976:72) 향가에서도 이와같이 피부정사인 동사에 선행하는 형식만이 쓰이고 있다. 이것은 고대국어에서 이른바 장형부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이 주로 선택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5. ‘不諭’는 전률통보, 고금석림, 유서필지, 어록변증실 등에서 모두 ‘아닌지’로 읽고 있다. ‘不’은 ‘아닌’으로 혼독되고 ‘諭’는 ‘지’로 읽힌 것이다. ‘지’는 ‘디’가 구개음화한 것인데 ‘諭’를 ‘디’로 읽은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不諭’는 남풍현(1967:6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안들’과의 패라다임상의 균형으로 보아 그리고 구역인왕경에서 ‘不諭’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정사 ‘不知’의 ‘知’의 독음 ‘디’로 보아 ‘안디’로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안디’는 ‘안+디’의 형태론적 구성인데 ‘안들(不冬)’의 ‘들’이 형식명사 ‘디’에 ‘-르’이 융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디’도 형식명사 ‘-르’에 ‘-

19) 靡 안득미(광주판 천자문 8b), 非(상동 10b), 不 안득불(상동 12b), 非 율비 又 안득비(훈몽자회 예산본 하 12b, 동중본 29a)

가'가 융합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不喩'는 남풍현(1976:68)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체언만을 부정하는 명사문부정에만 쓰이고 반드시 피부정사 다음에 오는데 향가에서도 피부정사 다음에 온다. 곧 '명사구+不喩'의 구성으로만 나타나고 피부정사에 선행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10) 1. 吾衣身 不喩仁 人音 有叱下呂(수회공덕가 4)

2. 吾筋 不喩 慚筋伊賜等(헌화가 3)

그런데 (10)과 같이 향가에 쓰인 단 두 개의 '不喩'의 용례 중 (10.1)은 피부정사 '吾衣身' 다음에 부정사 '不喩'가 온 명사문 부정형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2)는 부정사 '不喩'가 피부정사 '慚筋'에 선행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양주동(1942:231-232)은 이를 '不喩慚'으로 끊고 '不喩'는 '慚'을 수식하는 부사로 보았다. 그리고 이 경우 '不喩'는 '不冬'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혼용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려어를 기록한 계림유사의 '安理'로 해석하였다.

(11) 1. 瘦曰 安理 鹽骨眞(180항): 아니 염글진

2. 不善飲曰 本道 安理 麻蛇(203항): 아니 마셔

3. 飢曰 擺차 安理(207항): 빈<sup>ㄷ</sup> 아니

(11.1-2)는 '安理'가 동사에 선행한 '安理+동사'의 구성이지만 (11.3)은 동사에 후행한 '동사+安理'의 구성인데 이것은 '不喩, 安支'가 점차 '不冬'에 대치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이를 사어화시켰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혼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법을 표기한 자차표기 자료 중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 보고 남풍현(1976:71)에서는 기록당시(12세기)의 중부와 북부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10.2)를 혼용이나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여전히 명사문 부정에 쓰인 것이거나 아니면 오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용을 문증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명사문 부정과 관련시키면 부정의 범위 문제와 관계될 것으로 보인다.

다. (11.3)의 형식은 이두문에서 동사 어간에 ‘不冬’이 직결되는 ‘使內不冬’의 형식과 같은 것이다..

2.6. 끝으로 찬기파랑가와 우적가의 ‘安支’를 살펴보기로 한다.

(12) 1. 白雲音 逐于 淨去隱 安支下(찬기파랑가 3)

2. 安支 尙宅 都乎隱以多(우적가 10)

(12.1)의 ‘安支’는 ‘어디이, 안디하, 안스히, 아딕까, 수만피하, 안△히, 언저레’로, (11.2)의 ‘安支’는 ‘어니, 안디, 안스, 아디, 안히, 安ㅎ, 안죽’ 등으로 다양하게 해독되고 있다<sup>20)</sup>.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安支’의 독법과 이의 부정사 여부이다. 양주동(1965:333-4, 669)에서는 이를 ‘不喻’와 함께 ‘안디’의 부정사로 보고 ‘淨去隱 安支’를 ‘떠가는 것이 아니’로 해독하였다. 이러한 해독에 따르면 ‘安支’는 명사문 부정사가 된다. (10.2)의 ‘安지’는 양주동(1965:669-670)에서 뒤의 동사 ‘都乎’를 수식하는 부사로 해석하였다. 남풍현(1976:72)에서는 이것이 어미 n을 가진 동명사구 ‘尙宅 都平隱’을 피부정사로 하는 명사문 부정으로 보고 ‘以多’의 ‘以’는 계사로 이 귀절의 어순을 바꾸어 “尙宅 都平隱 安支以多”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0) 1. 白雲音 逐于 淨去隱 安支下(찬기파랑가 3)

소창진평 : 흰 구름을 조차 떠가는 어디이(오)

양주동 :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지현영 : 흰 구름 조초 떠간 안스히

김선기 : 흰 구름 조추 뜨간 아딕까

서재극 : 흰 구름 뜨추 떠가 수만피하

김준영 : 흰 구름 조추 떠간 안△히

김완진 :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2. 安支 尙宅 都乎隱以多(우적가 10)

소창진평 : 어니 놉죽(이)

양주동 : 안디 새집 도외니다.

지현영 : 안스 수탁(술)오니다.

김선기 : 아디 놉간집 도고 숨은이다.

서재극 : 안히 안죽 모도니다.

김준영 : 安ㅎ 尙宅 도은이다.

김완진 : 안죽 톱도 업스니다.

## 3

차자의 용자법은 개별적이고 예외적이기보다는 비교적 체계적이다. 향가의 부정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향가에 쓰인 '毛冬' 과 '毛如' 의 해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毛冬' 은 '冬' 자체의 독음에서 그리고 '皆' 의 용자와의 비교에서 동사가 아닌 경우 항상 부사로 기능한다.

둘째, '毛如' 는 부정사 '묻다' 로 해독되고 있으나 이를 '명사(毛) + 如' 의 구성으로 볼 수 있는바 이렇게 보면 명사 뒤에 오는 '如' 는 반드시 혼독한다는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皆' 는 관형사 '모든', 어미 '-기' 이외에는 '모두' 로 혼독되어야 한다.